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축제’ 연등회, 한 달 앞으로 다가와

4월16일 광화문 봉축장엄등 점등식으로 시작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봉축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5월6일까지 봉축일정을 확정하고 봉축점등식과 연등행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올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진행되는 동안 어디를 가더라도 볼거리가 풍성하다. 봉축행사의 첫 신호탄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봉축 장엄등 점등식이다. 점등식은 16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된다. 올해도 전통 한지로 제작된 탐등을 세워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밝히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점등식은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찬불가 봉송, 점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백미로 꼽히는 연등회 연등행렬은 26일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동대문과 종로,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진다. 참가단체와 불자, 시민들이 직접 만든 10만여 개의 장엄등과 행렬들이

어우러져 도심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이다. 앞서 춤추고 노래하며 연등행렬을 준비하는 어울림마당은 26일 오후 4시30분부터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연등법회는 관불

서울 종로-우정국로 중심
전국 곳곳 연등행렬

문화체험 어울림 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의식, 명종, 삼귀의, 반야심경, 개회사, 경전봉독, 발원문, 기원문 낭독, 행진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율동단, 연희단의 신명나는 화합의 율동 무대가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오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종각 사거리에서 대운동으로 연등행렬을 마무리하는 화향한마당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흥겨운 공연과 강강술래, 대동 율동 등으로 꾸며진다.

27일 낮12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전통문화마당이 열려 다양한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조계사 앞길 우정국로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100여 개 부스에서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 먹거리, 국제불교, 전래놀이 등 불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한지와 단청 등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도 25일부터 5월11일까지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은 5월6일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거행된다.

▶관련기사 3면
박상희 연등회보존회 사무국장은 “연등회는 간절한 기원과 정성으로 만드는 축제로, 지혜의 등불로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축제”며 “신라시대로부터 1300여년을 이어온 연등회가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란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남북 어린이 건강하게 키워요’

조계종 대북교류 기구인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흥스님)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이 주관하는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도담도담’ 캠페인이 지난 3월29일 파주 임진각에서 시작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사찰 캠페인을 통한 모금액과 아름다운동행 기탁금, 개인과 기업의 후원금을 모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충제와 수액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다. 사진은 남북평화 기원과 캠페인 동참 호소를 위해 임진각-민통선 철책로-통일대교-임진각 구간에서 진행된 ‘자비나눔 걷기대회’.

파주=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조계종-서울시 ‘에너지 10% 줄이기’ 협약

연등행렬 전구도 절전용

서울지역 사찰 257곳
건물 에너지 효율화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
다양한 절전운동 전개



박원순 서울시장

조계종이 서울시와 에너지 절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찰과 불교행사의 전력효율을 높이는 등 에너지 10% 줄이기 운동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30일 오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장 대오스님, 문화부장 해일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보화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주지 도문스님, 도선사 주지 도서스님,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 등 서울 주요사찰 주지와 신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올해 절반이 넘는 연등행렬이 절

전전구를 사용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서울시와 함께 사찰의 에너지를 진단해 전통건물에 맞는 소비양식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비와 절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종단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 상반기 원자력 발전소 1기 만큼의 전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약을 실천해 준다면 발전소 2~3기 이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협약식에 이어 오후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에너지 절약 서

명’과 프리그그 행사에 동참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종단은 조계사 등 서울시 관내 사찰 257곳과 함께 오는 2016년까지 건물에너지 효율화,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 에너지 10% 절약을 위한 다양한 절전운동을 전개한다. 먼저 조계사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전 지역에 ‘우리동네 조계사 발전소’ 1000개소를 만들고, 이곳을 중심으로 대기전력 차단 운동, 매월 초하루 대중교통 이용, 매월 보름 촛불의 날 운연 등 에너지 줄이기 운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서울 도선사, 달마사, 호암사 등에 단열공사와 펠트보일러를 설치하고 남향 사찰 전각에는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실천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이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종단과 서울시는 사찰에 대한 에너지 진단을 시범 실시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기초로 각 사찰에 맞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조계종을 시작으로 1일 천대종, 2일 원불교와 각각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신임 의원 선출 논의
9일 제45차 원로회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민운스님)는 오는 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45회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임명한 무진장 대종사의 후임 원로의원 선출의 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 3월20일 제197회 임시회를 열고 신임 원로의원에 펄택 만기사 주지 원경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정은스님은 은사로 출가한 원경스님은 1960년 용화사에서 사미계, 1963년 범어사에서 구족계를 각각 수지했다. 흥왕사, 청룡사, 신흥사 주지, 경기지방경찰청 경승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제2교구본사 용주사 말사 만기사 주지를 맡고 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불교신문 3000호 맞아 더욱 발전하길”

금산사 조실 월주스님
기금 1000만원 기탁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조실이자 불교계 NGO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스님(사진)이 지령 3000호를 맞는 불교신문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스님은 월주스님을 대신해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기금 전달식을 갖고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불교신문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화평스님은 이 자리에서 “큰 스님께서는 평소 불교신문에 대해 종단의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등



님의 뜻을 전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금산사 조실 스님은 다양한 활동으로 종단 스님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큰 어른”이라며 “더욱이 종단 공익법인을 통해 기금을 전달해 더욱 의미가 깊다”고 화답했다. 불교신문 사장 성직스님도 “앞으로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社告

불교신문 지령3000호 발행 기념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3000배 철야정진

불교신문은 지난 1960년 1월1일 창간하여 불교계 정상의 언론 매체로서 54년 동안 불행종교와 불교의 권익보호를 선도해왔습니다. 불교신문이 창간 54주년인 올해 ‘불교계 최초로 지령3000호 발행’이라는 역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현대 한국불교 산증인이었던 불교신문 지령3000호 발간을 기념하여 그 숫자에 담긴 의미를 조명하고 역사성과 전통을 알리는 의미에서 3000배 철야정진 사업을 전개합니다. 사회복지재단과 공동으로 3000배 철야정진을 통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나 아닌 ‘남을 위한 기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되새기고 몸소 실천함과 동시에 모연된 모연금을 국내·외 난치병 환아들에게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진행일시 : 2014. 4. 19. 토 ~ 4. 20. 일
- 장 소 : 조계사의 교구본사 및 주요사찰
- 동참문의 : 02)723-5101



불교신문 · 대한불교조계종총회복지재단 · 불교방송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오랜 수행을 통해 얻은 값진 체험과 깊은 사색으로 걸려 낸 언어, 그리고 깨달음의 정서로 풀어놓은 선적 통찰력들이 비우고 내려놓아야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향적 스님은, 이 선시의 해설을 통해 사물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읽는 안목을 드러내고 나아가 자기 응시의 시간을 갖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응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과 내통하고 부처와 가까워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정후正休 스님

향적 스님 해설 | 13,000원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전승되어 온 불교 생활문화 지침서

한국불교의 세시풍속과 일생의례 바로알기

절에 가는 날

제1부 불교 세시풍속_구미래
01봄 | 02여름 | 03가을 | 04겨울 | 05윤달

제2부 불교의례_자행
01불교의 5대 기념일 | 02불교의 재일

제3부 일생의례_이미형
01출생의례 | 02성년의례 | 03화혼의례 | 04축수의례 | 05임종예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 역임 | 값 18,000원

본 도서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추천 ‘불교교리 경시대회 대비’ 추천도서입니다.